

# “혁신도시 발전기금 점진적으로 늘리자”

### 광주시 ‘상생 걸림돌 해결’ 전남도·나주시에 제안...수용 주택 공공기관 납부 지방세 올 50%로 시작...매년 10%씩 증액

광주시가 광주·전남 상생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 조성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양보안을 제시해 전남도와 나주시에 향후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열린 제279회 시의회 본회의에서 “전남도와 나주시에 새로운 제안을 해놓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05년과 2006년의 합의 내용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낸 모든 세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나주 이외의 지자체 등을 위해 쓰게 돼 있다”면서 “하지만 광주시는 대승적 차원에서 2019년에는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의 50%에서 시작해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늘리는 양보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열린 광주·전남상생협의

회에서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당시 시도지사가 합의한 대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며 “상생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첫걸음이며, 각자가 광주·전남 전체 이익 차원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야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출범 당시인 2006년 2월 광주시장, 전남지사, 나주시장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 운영의 성과공유 협약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 사용한다’고 협약했다.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는 이전

이 시작된 ▲2014년 10억원 ▲2015년 79억원 ▲2016년 155억원 ▲2017년 293억원 ▲2018년 275억원 등 모두 812억원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협약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이 납부한 세금 전부를 공동발전기금으로 즉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했다. 하지만, 나주시는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세금보다 훨씬 많아 당장 기금을 조성하기 어렵다는 태도로 맞서고 있다.

/최권열 기자 cki@kwangju.co.kr

# 황룡강 장륙습지 ‘개발이나 보전이나’

### 지자체·시민단체 등 참여 TF팀 내주 출범

광주 황룡강 장륙습지의 개발과 보전 방안을 놓고 각계 의견을 나누기 위한 전담팀(TF)이 내주 출범한다.

15일 광주시와 광산구에 따르면 가칭 ‘장륙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논의 TF’가 내주께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첫 회의를 연다.

TF는 광주시와 광산구,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 공무원 등과 광주시의원과 광산구의원, 장륙습지 인근 주민 대표,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갈등조정가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전문가는 습지 보호와 개발 논리를 각각 대변할 관련 분야 교수 및 연구자가 추천됐다.

TF는 내주로 예상하는 1차 회의에서 광주시 또는 광산구로 운영 주체를 정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발과 보호 가치가 충돌하는 장륙습지를 둘러싼 여론을 하나로 모을 때까지 상시·정례 회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광산구가 앞서 두 차례 개최한 주민토론회에서 장륙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찬반 주체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개발을 요구하는 주민 등은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보전을 주장하는 환경단체 등은 원시 생태 그대로의 보호를 각각 제안한 상황이다.

장륙습지는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습지로 광산구 호남대학교 인근 황룡강교 일원에서 영산강 합류부까지 3.06km에 이른다.

광주시는 습지 보전 필요성을 인식해 2017년 10월 환경부에 장륙습지의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습지센터는 지난해 2월부터 열 달 동안 정밀조사를 시행했다.

국립습지센터는 829종 생물의 보급자리를 보호가 필요하다는 정밀조사 결과에도 개발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 때문에 환경부에 장륙습지 보호지역 지정계획 수립 건의를 유보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최승철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주수영대회 입장권 판매 ‘시민원정대’ 떴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판매촉진 시민원정대 출정식이 15일 조직위 대회의실에서 열려 조영택 사무총장과 원정대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자발적인 시민활동가로 구성된 ‘입장권 판매촉진 시민원정대’는 수도권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에서 수리·달이 인형이나 입장권 모형 등을 들고 인증샷을 찍어 SNS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일반인들의 입장권 구매 확산에 나선다.

### 시민활동가 14명 참여 서울·부산 등 전국서 판촉 활동

광주시민들이 직접 전국을 돌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판매에 나선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15일 조직위 회의실에서 자발적인 시민활동가들로 구성된 ‘입장권 판촉 시민원정대’ 출정식을 갖고 수도권 등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촉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광주 시민 14명으로 구성된 ‘시민원정대’는 이날부터 대회가 끝날 때까지 서울 명동, 로데오 거리, 인천공항, 세종, 부산 지역 등 내·외국인이 많이 찾는 곳에서 입장권 판매촉진 활동을 한다.

‘시민원정대’는 출정식에 앞서 자발적으로 100만원 상당의 대회 입장권을 구매했다.

대회 입장권은 누리집(<https://tickets.gwangju2019.com>)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대회 입장권은 누리집(<https://tickets.gwangju2019.com>)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최권열 기자 cki@kwangju.co.kr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빛그린산단 이전 어렵다”

### 산단 용지 포화 필요 부지 못구해 신규 산단용역 새 이전 부지 검토 광주시, 시의회 시정질문서 밝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이전 예정부지인 빛그린산단의 빈땅이 충분하지 않아 사실상 이곳으로의 이전은 어렵게 됐다.

광주시는 15일 김익주(민주·광산1)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빛그린국가산업단지는 산업부지 시설용지

119만㎡ 중 완성자 공장 예정부지 59만㎡, 제반시설 예정부지 39만㎡를 제외하면 미분양 산업용지는 16만㎡에 불과하다”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가 42만㎡임을 고려하면 이전 부지 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추진하는 ‘신규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이전 부지 문제를 포함하고, 금호타이어와 협의해 새로운 이전 부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익주 시의원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은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간 이전 협상, 부지 선정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양측의 논의조차 없고 대화 창구조차 없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또 “금호타이어가 빛그린산업단지로 이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협약을 체결한 지난 1월 16일에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광주시가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기대감을 가졌던 금호타이어와 인근 지역민들의 허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면서 ““광주시-금호타이어(노사) 지속발전 TF를 구성하겠다”며 실천 협약

을 체결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질타했다.

지난 1974년 광주 광산구 소촌동 현 부지로 확장 이전한 광주공장은 설립 당시에는 외곽에 자리했으나 도심이 확장하면서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는 현 금호타이어 부지를 송정역 고속철도(KTX) 투자 선도지구 개발 사업에 포함하고, 금호타이어 측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희망 이전 부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미래에셋대우, 광주시와 잇따라 협약체결을 한 후 도시계획 변경 용역사를 선정하고, 2021년까지 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 광의료 육성지원 사업 성과 중국서 2580만달러 수출계약 체결

### 상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나눔테크, 청도의료기기와 계약

광주지역 광의료 기업이 중국 의료기기 회사와 258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열린 중국 상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한 광의료산업협동조합 회원사 가운데 (주)나눔테크가 ‘청도 밝은 나눔의료기기’ 회사와 4년 간 2580만 달러 수출 계약을 했다.

(주)나눔테크는 올 하반기에 초도물량 150만 달러 선적을 확정했다.

또한, 광의료산업협동조합(7개사)은 중국 의료기기 대기업 랜드윈드(LANDWIND)사와 연구개발(R&D) 및 회원사 제품 공급 등을 포함한 실무 협약을 맺어 지역 광 관련 의료기업 중국 수출 활성화를 기대된다.

랜드윈드(LANDWIND)사는 중국 광동성 심천특별지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와 헬스제품을 포함 연간 매출 1조원 규모로 중국내 200여개 대리점을 통해 5000~6000여개 병원과 거래하

고 있다.

이번 성과는 지난 2017년부터 광주테크노파크를 통해 광기술을 응용한 의료기기 또는 헬스케어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해외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하는 광주시의 광의료 육성 지원사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광주테크노파크는 광의료 산업협동조합과 함께 지난 3월13일 중국 의료기기 글로벌기업 랜드윈드(LANDWIND)를 광주로 초청해 상호 업무협력 3차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를 위해 이번 전시회를 통해 후속사업을 꾸준히 지원했다.

이처럼 광주시 미래산업정책과장은 “광의료 산업육성지원을 통해 광산업의 판로 다각화와 지역 기업들의 수출 활성화를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중국과 사업교류가 활성화돼 광융합 허브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열 기자 cki@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